

장흥군, 고등어 저온유통체계 급물살

'선단 콜드체인사업' 기반 구축 예산 확보...노력함에 139억 들여 내년 6월 완공

장흥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어 선단 콜드체인' (저온유통체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장흥군은 연간 2000억원대 경제 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사업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어촌정주어항인 회진면 노력항에 총 139억 원을 들여 내년 6월 말까지 고등어 선단 콜드체인 기반시설인 급냉시설, 제빙시설, 선별장, 정화시설 등 사업을 끝내고 7월부터 고등어 선망 선단을 띄울 계획이다.

지난 2020년 4월 추진한 이번 사업은 국·도비 등 100여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이 나오고, 일부 어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2년여 동안 보류돼 오다 지난달 군 의회의 예산승인절차(군비 41억원 예산확보)가 마

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실제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건축, 기계, 전기 시설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전남도의 계약심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군은 장흥군수협을 포함해 3개 업체와 MOU를 체결한 가운데 2개 업체는 지자체 시설물을 임차방식으로 1개 업체는 민간자본투자(펀딩)로 지자체 토지에 시설물을 구축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문역할기구인 '콜드체인 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전국단위 전문가를 위주로 한 '업체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업체가 선정되면 기반시설을 착공해 내년 7월에 선단을 띄울 계획이다.

현재 국내 고등어잡이 대형선망 선사들이 유통난과 신선도유지 등 이유로 부산권 콜드체인망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지리적으로 경비 절약 여건이 좋은 장흥군을 포함한 전남 연안 지자체(고흥, 해남, 완도,강진)들이 콜드체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고등어 조업어장은 제주도과 거문도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서 장흥 노력항까지는 4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운반선 1척당 20억원 이상 경비가 절감되고, 신선도 등 품질 유지에도 장점이 유리한 위치다.

이에 대해 김성 장흥군수는 "이미 장흥해역은 제주도간 항로가 개설되고 부산권과 달리 시간절약과 경비절약에 잇점 등 여건을 갖추어 고등어선단 업체들이 최적으로 판명됐다"며 "콜드체인을 유치해 지역경제 윤행효과는 물론 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재본부장 kykim@



나주 '으뜸쌀' 미국 밥상에 오른다

5kg 소포장 2500포대 10t 규모 수출 상자 기념행사

가격 폭락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나주쌀이 연이은 대미 수출을 통해 판로 확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동강농협에서 최명수 전남도의원, 농협 조합장, 농업기술원, 나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강 '으뜸쌀'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물량은 5kg소포장 쌀 2500포대, 총 10톤 규모로 지난 달 왕건이 탐낸 쌀(10t)에 이어 두 번째로 대미 수출길에 오른다.

으뜸쌀은 오랜 세월 영산강 갈대밭이 퇴적해 형성된 순 질찰흙(머드팩 용도로도 사용)의 비옥한 갯벌(간척지) 토양에서 거둔 쌀이다.

미질에 도움이 되는 유기질이 풍부해 맛과 식감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맛 좋고 품질 좋은 나주 으뜸쌀 수출을 통해 미국 한인들이 그리운 한국의 밥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나주쌀 판로 확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한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송영철 기자 yacson@

장성군, 전국 첫 대학생 무상교육 '시동'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장성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학생 무상교육' 정책 시행에 시동을 걸었다.

학생은 졸업하고 청년은 도시로 떠나는 등 중소 도시의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성군은 최근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교육분야 공약사업 이행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군의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사업 내용을 협의·조정하는 자문기구로, 학교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회의에선 장성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김한중 장성군수가 공약한 '대학생 무상교육' 시행 방법과 시기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 '문불여장성 대학생 주거비 지원',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수당 지급',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선8기 교육분야 주요 공약사업을 설명하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김한중(앞줄 가운데) 장성군수는 최근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교육분야 공약사업 이행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장성군 제공>

을 설명했다. 올해 협의회에서 건의된 '학교밖 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완', '교육운영 지원' 등 25건의 제안 중 17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됐다.

나머지 제안도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의장인 김 군수는 "민선 8기 장성군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투자'라는 생각으로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장성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쌀귀리, 재해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신규 품목 포함

강진군의 대표 작물인 쌀귀리가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포함됐다.

귀리는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군은 강진 귀리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등록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수요조사와 평가를 거쳐 농가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보험 가입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진행할 예정

이며 정확한 일정은 농업정책보육금지원에서 군과 각 지역농협을 통해 알린다고 군은 설명했다.

온난한 기후 조건을 가진 강진군은 벼 수확 후 동계작물로 250농가에서 900ha의 쌀귀리를 재배하고 있다.

국내 전체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며, 연간 6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쌀귀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선정된 것은 쌀귀리 산업 발전을 위해 군과 농업인이 함께 애써 온 결실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콩 산업'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공모 선정...국비 20억 확보

함평군이 '콩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한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주관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콩 융복합단지 사업은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한 대체 작물로 콩 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함평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논 콩 재배단지

를 1000ha 규모로 늘리고 두부, 장류, 밀키트 등 콩 관련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추진한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값 하락, 쌀 소비 저하 등으로 벼 재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 대체 작물로 콩 산업을 적극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제21회 산의 날' 농식품부장관 표창

화순군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제21회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산림문화·휴양·치유·교육·등산 등 산림복지 증진과 입입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 등을 포상했다.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은 김두환 산림자원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산림자원분야 중점업무인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산림자원 조성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됐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조림과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산림행정을 펼쳐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산림이 많은 화순군의 입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향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